

# “차나 한 잔 마시게” 다례연 열려

## 화순 쌍봉사, 조주·철감 선사에 차 공양... “큰스승 가풍 이어 정진”

조주 선사와 철감 선사의 ‘차나 한잔 마시게(喫茶)’의 법연을 나누기 위한 다례연이 열렸다.

화순 쌍봉사주지 영제는 6월 2일 철감 선사와 조주 스님의 영정이 모셔진 호성전(護聖殿) 앞에서 차(茶)를 공양하는 다례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석정원 원장 선혜 스님을 비롯해 전안준 화순군수, 홍이식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성채 화순경찰서장, 장찬주 작가와 신도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쌍봉사는 예로부터 호남 불교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유서 깊은 사찰”이라며 “큰스님의 덕을 숭상하고, 차연을 베푸는 다례제를 통해 부처님의 참뜻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송광사 방장스님이 두 큰 스승의 영정을 모신 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었다”며 “큰스승들의 가풍을 쌍봉사에서 이어받아 더욱 정진하는 사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격려사에 앞서 정찬주 작가는 다례제의 취지와 철감 선사 행장을 소개했다.

정 작가는 “다례제는 고승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차를 올리고, 차를 나눠 마시는 행사”라



6월 2일 화순 쌍봉사에서 봉행된 다례제에서 석정원 원장 선혜 스님이 행단을 하는 모습.

며 “특히 철감 선사께서 중국의 남전 선사 회상에서 정진하실 때, 누가 불법을 물으면 ‘차나 한 잔 마시게’라고 대답했던 조주 선사와 함께 공부한 인연을 되새기며, 귀국 후 호남에서 법연을 펴신 큰 공덕에 감사하고자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법요식에 이은 헌공의식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차인인 선혜 스님의 행다로 대웅전 부처님과 철감 선사, 조주 선사 순으로 헌공, 다계, 퇴공음다(음복)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호성전에 모셔진 철감 선사는 신라 헌덕왕 7년(815)에 서울에서 출생, 18세에 김제 귀신사에서 출가해, 28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남전 선사의 제자가 됐다.

철감 선사의 스승인 남전 선사는 제자들이 ‘불법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평상심이 도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유명한 선지식이다.

철감 선사는 스승에게서 “나의 법인(法印)이 중국으로 돌아가는구나”하고 인가를 받고 50세에 귀국, 신라 경문왕의 청을 받아들여 이곳 화순 쌍봉사에 내려와 후학을 지도했다. 이후 스님은 경문왕 8년(868)에 71세로 열반에 들 때까지 쌍봉사에 주석했다. 쌍봉사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도도 손꼽히는 철감 선사 부도(국보 제57호)가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용성 조사 탄신

#### 죽림정사서 봉찬법회



백용성조사탄생성지 전북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림)는 5월 31일 용성 진중조사 탄신 제146회 봉찬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원두 스님, 대흥·지유 스님, 정토회 화주 법륜 스님, 유수 스님, 환희 스님 등 30여 스님들과 (사)죽림문화재단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김상두 이사장, 백용성조사 유훈실 현후원회 한명옥 회장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했다.

법회에서 도림 스님은 “용성 조사의 5대 수행을 통해 진실한 본성을 깨달아 성불인연을 지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죽림정사는 봉찬법회에 앞서 조사전인 용성교육관에 봉안된 7여래불 69조사 7대사의 다례제를 함께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태권도 수련하는 템플스테이

#### 무주 안국사 6월 13~14·20~21일

템플스테이가 국민적 휴양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를 접목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무주 안국사(주지 도안)는 6월 13~14일, 20~21일 2차례에 걸쳐 제2회 태권도 수련과 함께하는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제13회 반딧불 축제와 하나로 안국사와 무주군이 함께 마련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잊혀진 전통문화의 향훈과 자연과 하나된 마음을 통해 본래 내 모습을 찾고자 마련됐다.

‘태권도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는 적상산 안국사에서 태권도 수련은 물론 사찰예절과 예불, 참선, 명상, 발우공양 등의 불교문화체험과

조선헌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적상산 사고 견학 등 역사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국내외 태권도인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산사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박2일 진행되는 ‘태권도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의 참가비는 1인당 2만5000원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제13회 무주반딧불축제 반딧불이 생태관과 반디랜드 입장료 50%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태권도 도복은 무상대여할 수 있다. (063)322-6162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포교사단, 예비포교사 연수교육

전북포교사단(단장 김진수)은 5월 31일 전북불교회관에서 2009년 예비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33명의 대상자중 26명이 동참한 이날 연수는 5월 10일 ‘사회복지의 이해’ ‘사찰문화해설’ 강의에 이어 강홍원 포교사단장, 양성홍 전 단장 등이 강사로 나서 스피치 교육과 포

교방법론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북포교사단은 예비포교사들에게 매월 각 1회 이상의 사회봉사활동과 사찰봉사활동, 영불봉사활동, 자체의식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예비포교사들은 9월 정식으로 포교사 품수를 받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파견까지

#### 고창복지관, 원광보은의집 등과 취업연계협약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파가 운영하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은 6월 1일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에서 고창원광보은의집, 고창효도 의집과 함께 요양보호사 취업연계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 교육수료자 고용확약, 현장실무교육 및 장학파견, 인력양성교육과정 정보 공유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2009년 지역고용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고창지역 내 실직 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여성 100명에게 무료로 교육의 기회를 주며 교육 후에는 취업을 연계하는 윈스탑(ONE-STOP) 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무궁 스님은 “앞으로 지역 내 더 많은 요양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활기찬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김은민양 추모법회

지난 4월 불교학생회의 현수막 작업을 하다 사망한 김은민(조선대 미술학과양)의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환)는 5월 30일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대불림 김은민 법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과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스님을 비롯해 김은민 법우의 가족 그리고 대불림 회원과 동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전북포교사단 김진수 단장

### 익산불교 야전사령관... 포교시스템 구축하고자

30만 익산시민 가운데 개신교 신자는 1/3인 10만 명이 넘는다. 게다가 익산은 원불교의 본산이다. 개신교 신자들과 원불교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익산 지역에서 불교활성화와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사진)을 김 단장의 건설회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진수 단장은 “1년 365일중 200일을 불교 관련 일을 하며 지낸다”고 말하는 일꾼이다. 익산지역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곳이면 늘 어김없이 나타나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 같은 존재이다.

김 단장의 포교에 대한 원력과 활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북 포교사단장 소임 외에도 익산 관음사 일요법회, 군산 교도소 법회, 군법당, 이리불교대학,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등 김 단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포교현장 뿐만 아니라 익산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익산지역의 불교행사에 관청의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도록 으로는 양으로 그의 도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김진수 단장은 1990년 군산교도소 교정교화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군산교도소 법회를 시작했다. 20

여 년 세월이 지났지만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불자 재소자들의 교화활동에 매달려 있다. 재소자들이 기술을 익혀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정비 교육 등에 힘써왔다.

김 단장이 1995년 수상한 법무부장관 표창은 그의 열정과 업적을 가늠케 한다.

김진수 단장은 군포교에도 빠지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김 단장을 만나려면 “군법당에 가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 젊은 불자장병들을 위해 법회를 연 것도 20년이 넘는다. 군 불자장병들에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혹은 큰 형처럼 장병들을 대하기 때문에 김 단장이 방문하는 날이면 법당은 장병들로 가득 메워진다.

“불자라면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해야 진정한 불자입니다.”

김진수 단장을 이끈 힘은 이 소신이었다. 1990년 당시 관음사 주지인 일화 스님과 관음사에 이리

불교대학을 개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도 이리불교대학의 부학장 소임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또 신도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과 함께 매주 일요법회를 주관해 불자들의 양적 질적으로 성숙한 생활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

불사에도 빠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불사한 관음사 건물이 남아 불자들이 불편해하자 관음사 법당 신축불사에 집행위원장으로 화주역할을 자처해 현재의 3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2001년 조계종에서 수여하는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 단장은 2008년부터 전북 포교사단을 맡아 전북 지역 곳곳의 포교현장을 누비고 있다.

“익산불교의 포교1번지로 삼을 관음사 불교회관을 건립해 불교유지, 어린이집, 불교장례식장을 설립하고, 불교문화강좌를 개설해 익산 시민들에게 불교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원력을 세우고 싶지 않은 김진수 단장은 전북 지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과 같은 보배로운 원력보살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현대불교 현불샵

#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전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이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상품설명  
다완이란? 다완(茶碗, tea bowl)은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잔 또는 사발을 의미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대20,000원/중10,000원/소5,000원	 동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화합접시 판매가 45,000원
 다완(완-10) 판매가 60,000원	 다완(완-8) 판매가 100,000원	 다완(완-5) 판매가 6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대 40,000원 / 소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대 60,000원 / 소 40,000원	 벗피화병 대 100,000원 / 소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원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 @장리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검색하세요.